청소년 특집 · 마음을 뜨겁게 하여……13
· 성장하는 세대……16

성도의벗 7
1970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7월 1일
(통권 제60호)

발행인 : 서 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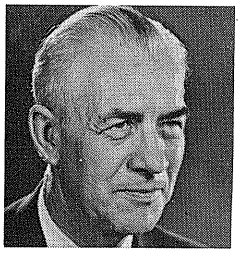
편집인 : 홍 무 광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영감의 멧세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처음부터 기독교는 믿기도 어렵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기도 어려운 종교였읍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살아 계셔서 그의 순수한 복음 원리를 가르쳤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거부했읍니다. 그중에는 그의 가르치심을 노여웁게 생각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고 마침내 저들은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도 있읍니다.

구세주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그의 제자들은 구세주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가려 하였으나 역시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고 불신당했으며 결국은 심한 박해를 당했읍니다. 경전에도 기록되었듯이 이들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반발을 받아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구세주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자면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저 받아 들이는 체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찾아야 하겠고 그 교회의 가르침이 자기와 익숙해온 생활이나 관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 들이고 믿어야 하겠읍니다.

말일성도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기가 어렵거나 쉽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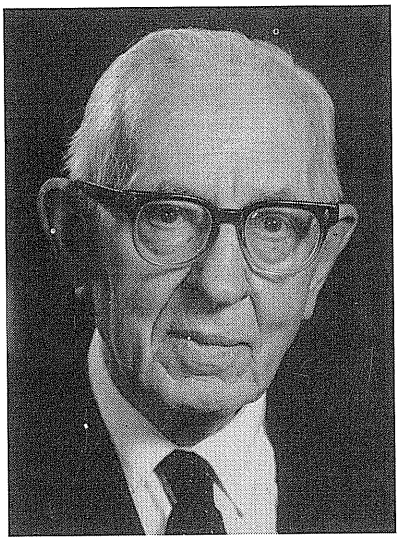
믿기가 어렵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아들이며, 구세주이시고 유대인의 메시야이시며, 만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태4 : 17)는 옛 외침이 또다시 들려오게 되었읍니다. 복음은 다시 그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읍니다.

제 6 권 제 7 호 **순 서** 1970년 7월호

☐ **권두언 : 시작하면서** 요셉 필딩 스미스 1
아세아에 있어서의 교회의 장래 에즈라 테프트 벤슨 2
아세아에 대한 선교부장들의 보고 4
우리는 왜 신전을 짓는가? 데이비드 오. 멕케이 8
"나라이 임하옵시며" 로이 더불유. 독시 10
피터의 노래 루실 씨. 리딩 12
■ **특 집** ■ **마음을 뜨겁게 하여** 트루맨 지. 매드슨 13
성장하는 세대 케네드 더불유. 고드프리 16
기적의 아침 마거리 에스. 캐논, 로린 지. 윌킨스 18
메리 조의 첫번 기도 마가렛 입손 키토 20
☐ **관리 감독단 페이지 : 목표** 죤 에이치. 반덴버그 21
☐ **주일학교 : 예배를 좌우하는 원리** 데이비드 로렌스 멕케이 23
☐ **상호 부조회 : 가정 생활이란 비단을** 할레발루 마타호 25
영혼을 구하라 매리온 지. 롬니 27
☐ **선교부장 멧세지 : 기도—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서 현보 30
☐ **지방부장 멧세지 :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차 종환 31
내외 소식 32
진리의 말씀 :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리차드 엘. 이반스 11
우리가 악을 용납한다면 리차드 엘. 이반스 표3

표지설명 :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복음의 기쁨과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읍니다. 이달의 표지는 온 세계 각처에서 그들 나라의 고유한 민속 의상을 입고 참석한 말일성도 젊은이의 모습을 실었읍니다. 이 젊은이들은 12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약 75만명의 다른 말일성도 젊은이의 상징적인 대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교회 본부에서 개최한 상향회 6월 청소년 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입니다. 이 사진은 대회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대관장 **요셉 필링 스미스**

● 매월 여러분과 이 페이지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을 주제로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모든 회원이 마땅이 가져야 할 간증을 주제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나날의 생활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겠읍니다. 사람이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를 몰라야 할 이유가 없읍니다.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면, 그래서 겸손함과 신앙으로 요셉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께 간구하면 쉽게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리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사람이 주님의 영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이해하겠다는 열의를 갖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읍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마태 7 : 7)

교회의 역원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구속주의 사명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세우셔서 그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며, 이 영광스런 경륜의 시대에 머리가 되게하신 사실에 대하여 나는 추호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읍니다. 나는 어린 그가 기도하려고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만나 함께한 사실에 만족하며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나는 압니다. 나는 또한 그가 후에는 모로나이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침례 요한의 안수로 소신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로 대신권을 회복받은 사실을 알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1830년 4월 여섯째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조직되었음을 압니다.

나는 전능자의 인도하심이 이 백성 위에 있고, 우리가 모두 그의 계명을 지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될 성약으로 살고 있음을 압니다. 적어도 말일성도라면 몰몬경이 참되며, 말일성도의 행하는 복음 사업이 참되고, 계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간증을 엄숙하게 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읍니다.

이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하기만 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특권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신앙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

아세아에 있어서의 교회의 장래

에스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서문이니, 내가 저희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출판케 한 책이니라"라고 한 예언적인 계시에 보면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교성 1 : 6, 1)라고 되어 있다. 이곳에 기록된 의미 심장한 글이 지적하는 지역이 아세아 제국과 일치된다. "귀를 기울이라.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밑줄 친 부분은 첨가된 것임)

지난 2년 동안 나는 네번 아세아 지역을 여행하였고 그 전에는 미국 정부의 장관의 신분으로 두번 아세아를 여행한 일이 있다. 나는 여러번 교리와 성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기억할 기회를 가졌었다.

태국, 말레지아, 월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를 여행할 때마다 "먼곳의 백성들아"라고 한 구절을 기억했으며 그곳 현지의 여행사 직원은 그곳에서 미국 쏠트 레이크 시로 돌아가려면 동반구를 돌던가 서반구를 돌던가 "거리가 비슷하다"고 했다. 하루전에 인쇄된 "요셉 스미스의 간증" 소책자를 타이 왕에게 전할 때도 나는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때 그 소책자는 타이어로 된 첫번 교회 출판물이었던 것이다.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자주 내가 생각해야 했던 말인가. 섬의 나라 일본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청소년 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었는데, 네시간 반이나 계속된 간증회에서 125명이 간증을 하였고 그다음 집회의 시간때문에 폐회를 선언하였을 때는 85명이 간증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이미 삼백여명의 회원이 확보되었고 새로운 지부 건물도 건축중에 있는 싱가폴을 지난 4월 선교지역으로 헌납할 때 역시 "바다의 섬"이란 말을 상기해야 했다.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2,000여명이 참석한 필리핀(7,000여의 섬으로 되었으며 인구는 4천만)의 마닐라 지방대회에 참석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다의 섬"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000여개의 섬이 딸린 인도네시아를 헌납하는 자리에서 그곳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바다의 섬"이란 말을 기억했다.

자유 중국의 지도자를 방문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홍콩에서의 교회와 대한민국, 이 여러 곳에서 이들 친절하고 겸손하며 용기있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몽아 "함께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으로 바로 오늘 처럼 교회가 아세아 지역에 힘차게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힘과 자세를 갖춘 때가 일찌기 없었다.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아세아 지역의 문을 열기로 계획하신 때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일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세아의 나라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의 여행과 방문은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본다. 이곳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크게 뻗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크게 번창할 기세다. 이곳 여러 나라의 성장은 한마디로 영감적인 것이다. 이곳은 세계 인구의 삼분지 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그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의 경우, 교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선교부가 네개, 그리고 여러 지방부가 조직되어 있다. 동경과 요꼬하마 근처에만 인구가 천사백만이며 이 지역에 훌륭한 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에 스테이크가 조직된 것은 지난 3월 중순으로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성도 수는 약 만 천명이며, 대한 민국에 사천명, 필립핀에 육천명, 홍콩에 사천명, 대만에 사천명 정도의 성도가 흩어져 있다.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막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끼나와나 월남에서도 훌륭한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한 민국에서의 첫번 선교사업은 군인 형제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월남도 평화가 수립되기만 하면 복음이 넓게 전파될 방편이 준비되리라고 믿는다.

아세아 지역에서 몰몬 군인은 친구를 사귄다던가 몇몇 사람을 개종시키므로써 교회의 근거를 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여행에서 우리는 태국의 여섯 개 모임을 둘러 보았고, 월남에서는 군인 지방부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인구 1억 3천만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9년 10월 26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헌납되었다. 싱가폴에는 새로운 선교부가 들어 앉았다.

실제로 우리는 아세아 지역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장차 훌륭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다. 1969년의 침례 수는 전년도의 100%를 능가하며 성장지수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요구는 건물이다. 필립핀의 경우 전 선교부를 통털어 건물 수는 단 한 개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건물을 지을 대지의 매입, 지부 건물 건축 계획의 진행 등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다.

우리 생전에 이 지역의 훌륭한 성도를 위한 스테이크가 들어 서고, 더 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며, 개종자와 지역 지도자의 체제가 강화되고, 아마 신전까지도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는 가장 고무적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개종자와 선교사와 선교부장을 축복하신다. 이 지역 성도들에게서는 소망에 찬 빛이 엿보이며, 이들은 함께 도우면서 단결하여 일하고 있다. 50여명이 참석하는 한국의 작은 지부에 대학교수가 다섯명이나 참석하는 현상은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세아 제국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들 훌륭한 "먼곳의 백성이며 바다의 섬에 사는 백성"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구원의 멧세지를 "함께 들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이매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 : 4—5)

나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증거하며 전 세계에서, 그리고 아세아 지역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깊이 감사를 드린다. ○

성찬식에서 말씀하는 일본인 젊은 선교사

신개종자가 신권의 직에 성임되고 있다.

아세아에 대한 선교부장들의 보고

일본 선교부

선교부장 월터 알. 빌스

● 지역적으로 우리 선교부는 혼슈의 북쪽 반을 차지하며 혼슈에는 세계 최대의 도시인 인구 1천 2백만의 동경을 비롯하여 북쪽 섬 호까이도—일본의 최초 정착자로 살갗이 희고 개중에는 금발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인 아이누족이 살고 있음—를 포함한다.

성도 수는 6,697명으로 17개 지부에, 17개 전도 지역을 갖고 있다. 새로운 예배당 여덟을 지었고—동경에 넷, 요꼬하마, 다까사끼, 사뽀로, 아사히가와에 하나씩—그밖에도 여섯 개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하였다.

옛날에 세로 들었던 건물에서는 회원들은 맨바닥에 앉아—혹은 작은 방석을 깔고—예배를 보았고, 겨울철에는 추위가 대단하여 작은 석유 난로를 가운데 놓고 겹겹이 둘러앉기도 하였다. 4개 지부와 3개의 전도 지역을 갖고 있는 호까이도 지방은 예배당 지붕 높이까지 눈이 덮이는 게 보통이다.

선교부 전체의 교통 문제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지하철이나 기차, 뻐스 등을 이용하며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편도 한 시간 반에서 세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모임은↗대개 한 번에 갖도록 되어 있고 한번이라 하더라도 거의 하루가 다 간다. 침례식은 주일 새벽에 바다나 노천 혹은 옥내의 침례탕에서 갖는다. 회원의 직업은 퍽 다양하다. 상인, 노동자, 의사, 치과 의사, 실업가, 기술공 등. 현재의 선교사 수는 181명이며 그중 장로가 159명 자매가 22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중 20명이 일본인이다. 침례자 수는 1968년에 281명, 1969년에 710명, 그리고 1970년에는 2,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몰몬경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비교적 동부에 더 잘 알려져 있다. 1969년도 초반기 6개월간에 우리는 몰몬경 6,326권을 팔았고 지난 최근 6개월 동안에는 48,147권을 팔았다. 1970년도의 판매 목표를 200,000에서 300,000으로 잡고 있다. 일본판 「행복의 추구」(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장소를 여섯 군데에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10월에는 비행기 2대를 전세 내어 동경에서 직접 쏠트 레이크 시로 날아가 연차 대회에 참석할 계획중에 있다. 우리는 모두 엑스포 '70이 준비 진행되는 대망의 70년도를 움켜잡을 작정이다. ○

일본—오끼나와 선교부

선교부장 에드워드 와이. 오까사끼

● 우리 선교부의 관할 구역은 일본 전체의 반이나 된다. 지역으로는 혼슈 섬의 반과 시코꾸도 전체, 규슈와 오끼나와 전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일본 인구의 절반인 5천만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임)

일본 고유의 전통이나 풍속에 이미 복음의 진리가 심어졌다는 확증이 보이는데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몇가지를 살펴보면 : (1) 일본 재래의 신도에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 침례받는 의식이 있다. (2)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의 이름을 없애고 제사가 붙여주는 천국 이름을 사용한다. (3) 조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4) 일본인들은 장자 제도를 따른다. (5) 화생이 하늘 축↗복을 가져 온다는 성약을 믿는다. (6) 일본 창조의 이야기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우리 선교부의 회원 총수는 5,281명이고 총 지부수는 32 지방부가 6개, 군인 지방부가 둘이다. 예배당 건물을 4개 지었고 그 외에는 모두 건물을 세내어 쓰고 있다. 현재 선교사 수는 191명, 시간 선교사는 18명이다. 1969년에는 613명을 침례하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현재 전 일본에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으며, 우리들의 1970년의 전망은 사못 밝다. 특히 아세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세계 만국 박람회로 해서 더욱 그렇고, 그 박람회 장소인 대판이 바로

우리 선교부 관할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교회관의 위치가 더할나위없이 훌륭하여 한번은 만박 위원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얻으셨오? 배경이 대단하겠어요."라고 한 적이 있다. 물론 배경이 더 할 수 없지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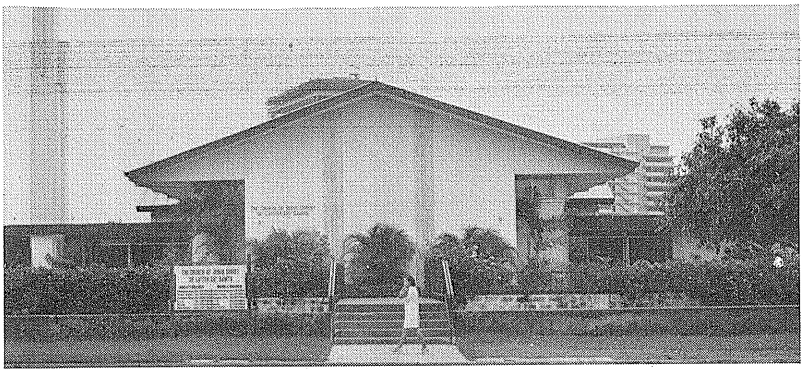
교회관의 위치는 일본관 마즌편이다. 휴식처로 지정한 거대한 호수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치는 무료로 영화와 극을 보여주는 최대의 상영 장소가 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6개월 동안에 5백만 내지 8백만명을 접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미 대관장단에서는 「행복의 추구」를 일본 배우로 인물을 바꾸어 다시 만들도록 허가해 주셨다. 현재 우리는 선교사의 전도 지침서를 일본 사람의 생리에 맞도록 수정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육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시켜서 현지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새 제도를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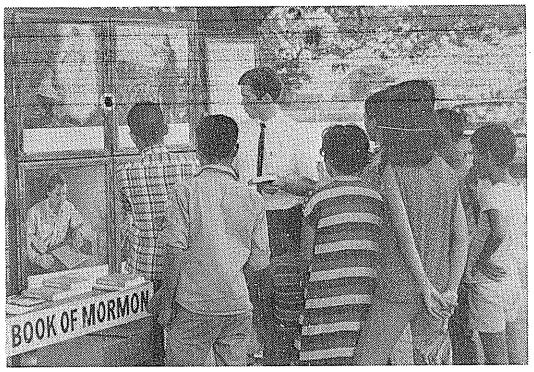
금년 안에 성도들은 전세 비행기편으로 하와이 신전을 방문하여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 축복사의 축복 등을 받을 계획이다.

침례 숫자는 현재 월 19명 선에서 월 200명 선으로 올릴 계획이며, 작은 배로 큰 파도를 딛고 올라 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회를 느낀다.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 교회관은 우리 모두가 최고의 속력을 내어 달음질하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현재로는 당면한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항해할 것이며 입가에 소금기가 밸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필리핀에 세워진 예배당



선교사가 필리핀 젊은이에게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필리핀 선교부

선교부장 **폴 에스. 로스**

● 필리핀 선교부는 7,000여개의 군도로 형성된 필리핀 공화국 안의 유일한 선교부이다. 북부 루손도의 큰섬에 있는 라오 아그에서 부터 남쪽 민다나오 섬의 제네럴 산토스시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와 지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곳 선교사들은 크게 나누어 37종이 되고 모두 통합하면 60여 가지나 되는 사투리를 다루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다. 선교사들의 통상적인 상호 교통은 영어에 의존한다.

우리 선교부의 총 성도 수는 5,199명이며 (1969년의 침례수는 1,351명) 20개의 지부와 19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현재 선교 사업중인 선교사 수는 179명이며 모두 35개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한개 갖고 있으며 곧 2개의 건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나는 필리핀 국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늘 협조적이며 미소와 친절로 사람을 대한다. 세계 제 2 차 대전후 비율빈 사람들은 미국인 모두를 '죠'라는 별명으로 불러왔으며 특히 선교사들을 '죠'라고 한다. 선교사들은 어린 아이를 좋아하며 이 어린이들로 인하여 무더운 하루의 피로를 씻는다. 어린 아이들은 늘 선교사를 따라 다니며 많을 때는 50여명이나 되는 때도 있다.

선교사들은 모두 지난해 보다 전도하기도 쉽고 몰몬경을 팔기도 쉽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들의 1970년도 전망은 사못 밝다. ○

홍콩—대만 선교부

선교부장 **더불유. 브렌트 하디**

● 우리 선교부는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까지를 관할지역으로 한다. 인구는 대만이 1,400만이고 홍콩이 약 450만이 된다. 본 선교부 산하 회원 총수는 8,673명이고 3개 지방부에 31개의 지부로 정리되어 있다. 선교사는 임지에 도착하는 즉시 홍콩어 혹은 중국 지방 표준어를 익혀 홍콩이나 대만에서의 언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두가지 지방어가 모두 사투리에 속하나 두 언어가 너무도 상이하므로 홍콩과 대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를 서로 교환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는 교회 규격에 맞는 예배당으로 개조한 건물 4개를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승강기를 사용해야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조그만 방 한 개로 된 예배당도 있다. 그밖에 15개의 지부 건물을 세 내어 사용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 들이고 있으며 우리는 1970년도의 침례 목표를 1969년도의 두배로 잡고 있다. 이곳의 교회 성장은 퍽 고무적이다. ↗

인구 1,400만의 대만의 성도 수는 4,500명이다. 경제 성장도 놀라워서 1964년 이래 국민 소득은 배로 늘어났다. 실직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 도처에 현대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대만에 파견된 선교사는 모두 78명이다. 대만의 교회 조직은 좀 특이하여 선교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스테이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방부 장단과 지방부 평의원회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첫번 스테이크의 결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중국 남동 해안에 위치한 홍콩은 공산군의 땅과 인접한 곳으로 398.5 평방마일의 땅이다. 이곳에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금년도 본 선교부 목표는 해당·소속지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 성도들이 아세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선교사가 구도자에게 소책자를 전해주고 있다

지방부 식교사인 후옹자매가 카오후시옹 역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기다리고 있다

동남 아세아 선교부

선교부장 **지. 캐롤스 스미스 이세**

● 우리 선교부는 1969년 11월 1일에 발족되었으며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남극동 선교부가 홍콩—대만 선교부와 동남 아세아 선교부로 나뉜 것이다. 우리는 인도지나 반도와 월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버마, 네팔, 세일론, 파키스탄 등지를 관할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억 7,50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로는 남부 월남에서 선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활기를 보이고 있다. (1970년 1월 5일 다섯 선교사가 자카르타에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곳에는 소수의 인도네시아 성도와 20여명의 코카사스계의 성도가 함께 모이고 있다.)

2년전에 여섯 선교사가 개척한 싱가폴 지역에 현재에는 장로 46명을 비롯, 지부 회원수가 186명에 달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지부가 있어 225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태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코랏 지방에도 30여명이 참석하는 지부가 하나있으며 현재 태국 전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선교사가 활약하고 있다.

월남에는 군인 형제들이 관리하는 지방부가 셋 있으며 지부라기 보다는 지역 모임을 갖고 있다. 사이곤에 있는 정규 지부에는 회원 약 90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월남인과 외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폴과 월남에서는 영어로 전도활동이 시작되고 있고 태국에서는 태국어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는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나 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곧 교회를 짓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세아 지역 국민은 모두 훌륭하다. 주님께서는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훌륭한 친구를 사귀도록 해 주셨으며, 이곳에서도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 ○

한 국 선 교 부

선교부장 **로버트 에이치. 스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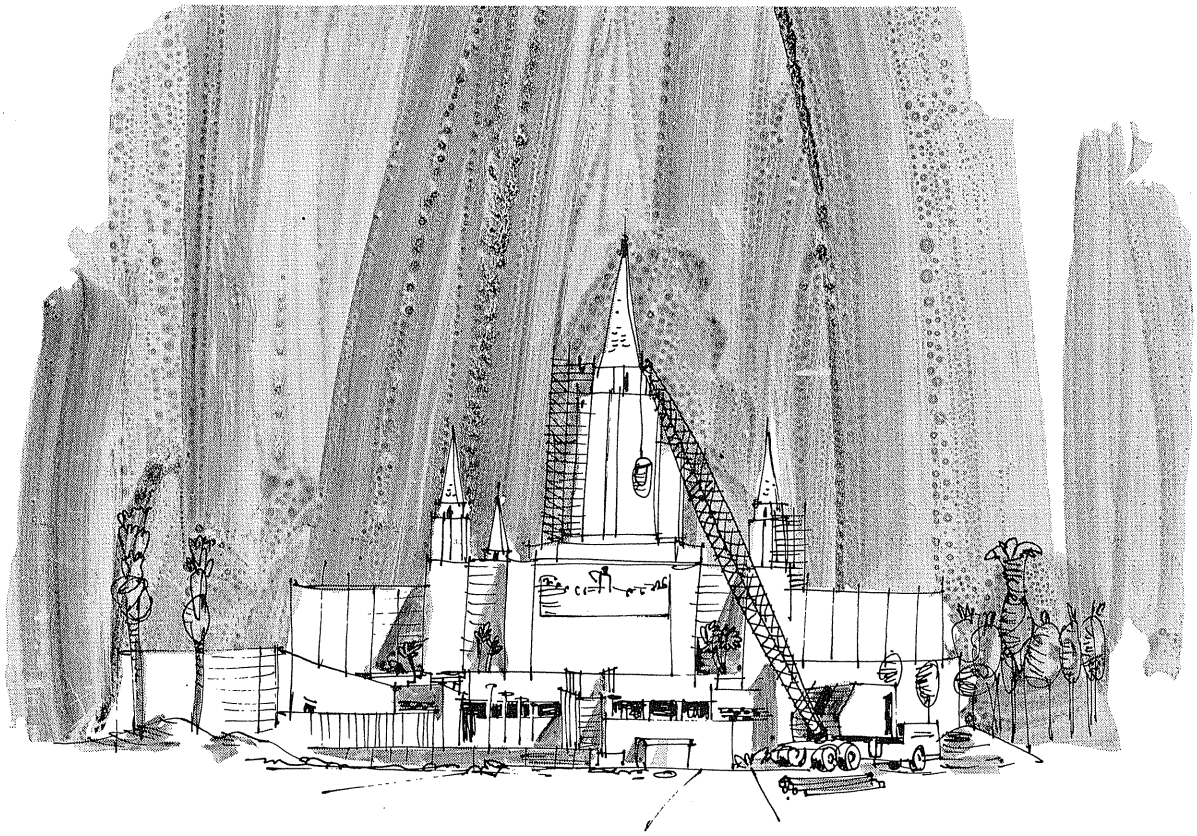
● 현재 우리 선교부는 대한 민국 전역을 관할하며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3,100만이고 군인 및 미국 관리를 포함한 이곳의 성도 수는 4,000을 상회한다. 한국 선교부는 조직상 4개의 지방부와 21개의 한국인 지부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선교사 수는 100명이나 된다. 현재 한국에는 교회 정규 규격의 예배당이 서울에 둘, 부산에 하나가 있어 모두 셋이며, 구도자나 기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훌륭한 길잡이 노릇을 한다. 작년 한해 동안 한국 선교부는 450명을 침례하였다.

한국에서의 교회의 이미지는 이제 겨우 12년의 포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훌륭하다. 선교부가 발족된 것은 7년전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회 이름은 전역에 알려져 있고, 우리는 대도시에서 교회 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중앙 방송국을 통해서는 정규적으로 태버나클 합창을 방송하고 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선교사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세아 전체에서 기독교 신자 수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협조도 훌륭하며 현재 대한 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달성 목표는 강력한 선권의 기초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미 훌륭한 이곳 성도로 구성된 지도 체계가 세워져 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현재 우리는 스테이크로의 설계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신전을 짓는 일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



우리는 왜 신전을 짓는가?

전대관장 **데이비드 오. 멕케이**

● 거의 세계 전역에서 신문 기자들이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은 "왜 몰몬은 신전을 짓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신전과 보통 예배당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읍니다. 교회 회원은 비밀스런 의식이 아닌, 다만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전을 짓는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를 연합시키는 인봉의 의식이 있으며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인봉의 의식도 있읍니다. 부모가 인봉의 의식을 가질 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성약의 자손으로의 특권을 갖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숭고한 정신적 재산인 사랑이 인간의 영혼, 그것과 함께 영원해야만 한다는 진리를 터득한 지성층의 신문기자나 구도자에게는 대단한 흥미를 갖게 해 줍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그의 사랑은 끊임없이 존재하여 연결된다고 믿고, 죽음 이후에도 영혼과 인격의 개체성이 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사랑의 온전함 역시 영원히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저는 어떤 중년 부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고, 물론 그래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구세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했읍니다. (마태 19:19를 참조할 것)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늘의 것과 닮았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세에서의 사상과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 조화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곳에서 했던대로 다시 그들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의 영의 세계에 대한 바램은 황홀하기 까지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누구 보다도 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나와 긴밀한 유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

나는 모든 인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와 도움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그 곁에서 병 시중을 들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과 마음을 더욱 가깝게 묶어 주며, 사망이 이러한 마음의 띠를 떼어 놓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확신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 결혼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갈어야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서는 합당하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능을 대리하는 자로부터 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연결되어 영원히 유대를 함께 할 가족으로 인봉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신전을 짓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읍니다만 쉽게 이해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더러는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대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원리와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집행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원칙에 순종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세상 모든 사람이 어느 특정한 기본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구세주께서 오직 하나의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음을 증거하는 구절이 많읍니다. 예를 들면 유대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에 관한 기록을 읽었으며, 마침내 주를 따랐음) 주님께서 지니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갖지 않은 그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말했읍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요한 3:2) 또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니고데모는 "제가 어찌해야 되겠읍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이 역시 경전의 기록에 실려 있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요한 3:3)

적어도 예수가 살아서 지녔던 영성을 조금이라도 알아 보려 한다면 먼저 우리는 영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읍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대답하신 말씀의 뜻을 육체적인 것과 연관하여 해석하려 하였고, 곧 어른이 된 사람이 다시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는 또 의미 심장한 말씀을 들려 주셨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한 3:5)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조차 들어 본 일이 없는 여러분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밖에도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명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조차 들어 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벌 받게 하는 행동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겠읍니까? "우리는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상앙개조 제3조)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믿읍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속에 누워있던 동안 그의 영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불복했던 영들을 가르치러 옥에 가셨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베드로 후서 2:19) 수천년 전에 죽은 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전을 짓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조상의 이름을 수집하여 대리 침례를 받게 해 드리므로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이곳에 살고 있듯이 저 세상에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신전에 가는 사람은 저들이 참된 기독교인이요,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요, 이웃에 정직한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에 좇아 생활하는 자임을 인정한 추천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회복된 복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셨읍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신전에서 특별 은사를 받으며, 동물의 삶의 방편인 시기, 증오, 이기심 등을 버리고 지고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으로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는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와 성도의 자손과 증손이 주님의 전당에서 이행되는 모든 의식과 그 의미의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영합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에게는 사랑과,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영성을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않될 영원한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 2:14 참조) ○

나라이 임하옵시며

로이 더블유. 독시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교리와 성약 65:6—

● 1830년 10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의 내용이 강조하는 멧세지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 (교리와 성약 65 :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다니엘은 옛날에 세상의 왕국이 세워지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꿈을 꾸었다. 1831년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으며(교성65 : 2) 그 왕국이란 인간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세을 갖춘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던 것이다. (교성1 : 30참조)

계시를 살펴보면 인간은 모름지기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세상에 알리고" "준비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교성65 : 1, 405) 여기에 열쇠가 있다.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여 예수의 재림의 때에 하늘 왕국이 이땅의 왕국과 만나는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교회로 단합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업을 도아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의무인 것이다. (교성23 : 7, 65 : 4)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이 두 낱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늘 왕국의 부분으로 이전에 이 땅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 왕국이란 망각의 장막 뒤에 위치한 것으로 이 땅의 교회를 포함하며 "실제로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통합한 왕국인 것이다"[1]

이와 연관하여 우리는 탈메지 장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열국을 다스리겠다는 욕망을 갖지 않는다. 이 왕국은 현존하는 지도 체제를 허물어 버리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땅에 존재하는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으며, 다만 옳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하늘 왕국이 이땅에 세워지기까지 모든 사람이 바른 다스림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주가 오시면 그가 모두를 다스리실 것이니 이는 모두를 다스리는 일이 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

여러분은 준비되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스릴 복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가 임하기 전에 어떠한 사태가 있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아 과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주는 주를 위하여 일할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준비되어 있어야 겠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안다. (교성 100 : 15—17)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같은 복된 생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네가지 사항을 소개해 본다.

1. 주의 음성이 높은 곳에서 들리며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내려 주셨으니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야 한다. (교성1 : 17, 18

1. 제임스 이. 탈메지, 신앙개조, 마사추셋 소재 케임브릿지 대학신문. 1949년, 366~367페이지

2. 로이 더블유. 독시, 말일의 예언자와 교리와 성약, 제2권, 유타주 쏠트레이크시 데세렛 출판사 발행 1964, 369페이지

65 : 1참조) 물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나눈 성약과 신전에서의 성약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이것에 포함된다.

2. 진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교성1 : 19—23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간증을 가진 회원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회원은 영광 가운데 주가 오실 것을 고대한다. (교성45 : 89 참조)

3. 시온을 건설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영으로 거듭 나"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치는 일을 하는 이외에도 시온을 건설하는 일을 직접 도와야 한다. (교성 6 : 6, 7 · 38 : 40, 앨마 5 : 14—31 참조)

4.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한다. (교성65 : 5)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도 분명한 오늘날 다음과 같은 요셉 에프. 스미스 전 대관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다.

"……우리는 개인으로의 우리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원으로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정성을 성신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을만큼, 영적으로 겸손하고 또 주님께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잔잔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만큼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며,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탓하는 사람이 혹평가이거나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원수이거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말일의 위업과 영적으로 통하는가? 목표한 궁극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가? 이상의 제 문제와 그뜻이 일치될 때 주변의 사람이야 무엇이라고 탓하던 우리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이행해야 하겠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리차드 엘. 이반스

●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1] 이란 말이 있읍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서 행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읍니까? 갖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원하고 방종과 쾌락과 권세를 더욱 원하면서 행복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래도 불만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손을 뻗쳐서 일단 자기가 갈구하던 바를 이루면서도 더 큰 것을 욕심냅니다. 규모와 권세를 욕심내는 사회에는 더 큰 혼란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기록이나 도표상의 상승만을 위한 경쟁이나 비교의식은 그 목적이 선할 때에는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분수를 차리지 못하는 것일 때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그치고 맙니다. 열왕이 가질 수 있는 것 보다도 더 훌륭한 위안과 평안을 갖고서도 더욱 더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람이 만족과 평안과 목표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겠다는 건전한 의욕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고, 끝없이 추구하기만 하고 참된 평화나 목적을 갖지 않고 구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선한 것은 원래 그 선한 것으로의 효용을 잃고 말았다. 아울러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즐길뿐이다" 라고 다니엘 데포는 말했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끝이 없는 인류의 요구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만, 얼만큼 마셨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마신다던가, 얼만큼 달렸는지도, 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달린다던가 하는 일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조화와 가치 판단과 내적인 평화와, 목적을 추구하는 정직한 노력을 허가해 주십니다. ○

1. 카네기 계간 공보 제7권 3호.

피터의 노래

루실 씨. 리딩이 전하는 실화

● 피터는 낯선 병실 주변을 둘러 보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 맞는 밤이었다. 간호원들이 곁에서 시중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겁이 났다. 의사 선생님도 퍽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의사 선생님은 내일 아침 일찌기 착수하기로 한 피터의 수술 계획을 어린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느라고 오랫동안 애를 쓰셨다.

병원은 굉장히 컸지만 온통 환자로 붐볐다. 피터는 겨우 남자 병동의 작은 방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자기의 작은 방 밖에 있는 큰 병실에 환자가 가득하다는 생각은,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것이었다. 크게 소리내어 울기는 싫었고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다가 피터는 홋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정성을 다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를 끝내자 친구들과 주일날이면 함께 부르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아네…" 라는 노래가 머리 속에 떠 올랐다.

그 노래의 가사는 늘 피터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때만은 그 노래를 입밖에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딜만큼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곧 노래는 열망하는 소리가 되어 울렸다.

마침 문밖으로 지나던 간호원이 작은 소리로 시작된 노래가 합창으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가사, 그 앳떤 노래의 가락은 온통 남자 병동 전체를 울렸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야기하던 것을 그쳤다. 라디오도 껐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중에는 확신에 찬 어린이의 위로의 노래를 듣고, 두 볼 위로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피터는 노래를 끝낸 다음 잠자리에 들어 곧 잠이 들었다. 그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던 것이다. ○

마음을 뜨겁게 하여

트루맨 지. 매드센

● 1975년이 되면 대학생 연령에 달하는 말일성도 젊은이는 25만명이나 될 것이며, 이 때부터 10년마다 그 수효가 2배로 불어나고 십대의 말일성도 청소년은 해마다 5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본다.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날은 일본,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나 호주에서도 말일성도 젊은이를 볼 수 있으며, 옛날 록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그들을 찾아볼 수 있던 때는 이미 지나고, 실로 세계 도처에 널리 퍼져 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부름을 받고 각 나라로 파송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 파송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임무를 찾는데 유동적이며, 침착성이 부족하고 불안정하며, 고립되기도 하며, 때로는 내면에 일어나는 불안으로 과격해 지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그들의 동료들과 매우 일치하는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들을 주시하는 관찰자는, 그들이 서로 민족과 개성이 다르나 하나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특히 그들이나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과 비밀 보장의 은밀한 의사 소통을 하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사실의 근원을 인식할 수 있다.

젊은이에게는 네가지의 지배적인 추세 즉, 첫째 자기 존재를 밝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 둘째 전형적인 인물을 실제로 모방하고 따르려는 요구, 세째 사명감과 뜻있는 목표에 대한 요구, 네째 가족의 사랑을 받고 이를 조성하려는 요구가 있다.

종교적인 요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내릴 수 있으나 다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가진 네가지의 추세를 신중히 분석해보면, 단순한 욕망이라기 보다는 더욱 심각하며 절실한 요구로서 어떤 것을 신뢰하며, 어떤 인물을 숭배하려는데 하나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는 안목이 좁거나 진보성이 없든지 또는 전연 혼란한 상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지식을 쌓는 일보다는 더 많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상담 시간을 통해서 보면, 탕자의 비유와 같은 일에 대한 관대한 태도나, 어른의 위선으로 위장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엄격한 교육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립시키는 방법도 안정성이 없다. 대개 이런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무시한 저속한 내용의 텔레비죤을 시청하며 15,000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오늘날 이들은 도회지나 시골이나 어디에 살든지 바로 지척에서 적은 돈만 있으면 현대판 고모라의 도시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다. 마치 핵실험의 방사선 낙진이 뒤덮인양 최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깨끗이 하려고 온갖 가증한 것들을 시온에 들어오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히버 씨. 킴볼 사도의 말씀처럼 가증한 것들이 시온에 들어오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피해를 입지 않고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비록 외부의 상처는 있었을지라도 여러 부류의 이념이나 학설이나 악습으로부터 개종하는 젊은이를 목격해 왔다. 이들 중에는 소아마비 왁찐 주사에 반작용을 나타내는 인공 철제 폐와 같은 젊은이도 있으며, 이들은 개종자로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치명적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나 무관심한 젊은이로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며, 이를 탈피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흔히 제지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반박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닮으려고 하는 젊은이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전연 취사선택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나 간접으로 그것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를 밝히려는 요구

젊은이에게 가장 절실한 내면의 문제는 때로 실의에 찬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문제가 사실상 세대의 격차이며, 젊은이의 덧없는 야망, 타고난 운명의 사이에 벌어진 틈인 것이다. 그들이 운명을 위해서 매혹을 버려서는 안되지만, 진실로 "그들 자신의 일"을 행함이 그리스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빛의 서광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행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진실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한 다음에 발견되는 것이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들 국가의 내란에 너무 관여한 나머지 이같은 사실에 직면하려는 열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위대함을 찾으려는 준비도 없고, 더욱 훌륭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바라며, 그분을 용납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모방하려는 요구

젊은이가 목청을 가다듬어 그들이 좋아하는 매혹적인 가수를 흉내내며, 영화 배우를 모방하려 하고, 팬레터 쓰기를 좋아하며, 과장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흔히 듣는 말이지만, 매우 슬픈 일이다.

허지만 그런 이면에는 그들은 쎄미나리 교사, 코우치, 선교부장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깜짝놀라리 만큼 정확하게 그들은 잘 알지는 못하면서 영적인 통찰력과 판별력의 민감한 점을 따르려고 할 것이며, 이런 일은 그들 대학내의 지성적인 인물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젊은이가 주님의 위대한 통변자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는 때가 중요한 계기가 되어 (멕케이 대관장이 말씀하신 젊은이의 "경전 무식"은 성인의 경전 무식을 반영시켜주며 이는 비참한 일이다.) 그 결과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되는 것이다. 계시를 통해서 보건대 신앙의 실천이란 성인의 자존심이 바라는 것같이, 성인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이끌어 내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들어 났을 때 그들이 먼저 구세주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요컨대 젊은이는 그들이 본 사실을 믿는다. 그들은 성인들 가운데서 때로는 주 안에서 다음과 같은 구세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본 줄 알리니, 곧 내가 존재하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참 빛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풍성하게 될 수 없느니라."(교성 88:50.)

사명감에 대한 요구

혹평자가 말하고 있듯이 젊은이는 모든 면에서 그릇되게 흘러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성스러운 것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주님에 대한 젊은이의 거리보다 성인들의 거리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분에게는 가능하시며 오늘날 주의 음성은 젊은이에게 이르시기를 "높은 곳에서 임하는 〔주의〕 권능을 받고"(교성 38:32,38 참조) 모든 세상과 더불어 싸워나가라고 하신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마도 14세의 어린 소년인 자기 어깨에 영원히 걸머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찌기 서부를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남자들이 (아직도 연약한 청년들이었다!) 저마다 왕과 대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산에 오르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실제로 그들은 왕과 대제사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화했던 것이다.

사명감은 어떤가!

거룩한 권능에 의해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살피라는"(교성 20:54) 임무를 준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 아닌가? 특히 "그들은 회원의 신앙을 격려해주어야 하며, 길을 벗어난 자를 잘 설득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활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40년판 77페이지.)

이와 꼭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이는 성인들의 은밀한 범법 행위로 영향을 받지만 이와는 다르게 보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성인들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정신 무장을 더욱 잘 시켜줌으로써 젊은이가 성인들이 보여주는 참신한 생활의 모범에 영향을 받고 훌륭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가? 상향회 교사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둘째로 해외에 나간 젊은이의 영향 때문이다. 그들 젊은이는 선교사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 실로 세상의 어느 곳에나 성임받은 젊은 장로들이 있으며, 또한 자기 분수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들을 발견하며, 이들은 "서로 혈통이 다르면서" 자기 양심에 따라 모든 일에 잘 참여하며, 어느 점에서는 군목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 관리는 경악하며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다 깊은 관점에서 볼 때 그들 모두는 군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수천년의 전통에 의해 성장하여 온 대다수의 젊은이가 그들 가족의 엄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 들이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젊은이의 가족은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상징적인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젊은 이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현대의 계시에 나타난 은유는 "……나의 젊은이〔그리고 여자〕는……나의 집안의 온 세력이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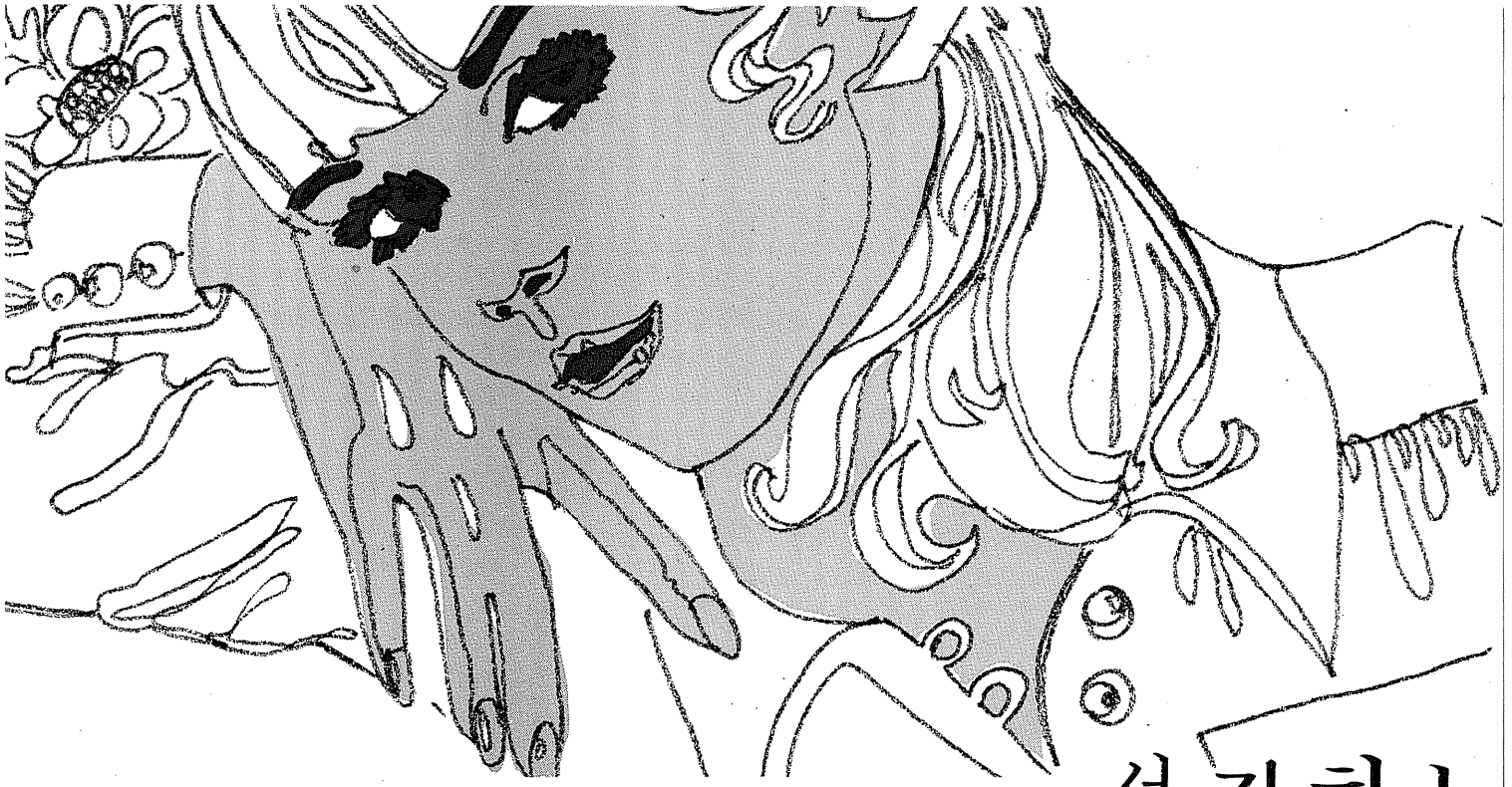
가족의 사랑에 대한 요구

끝으로 젊은이는 그들의 환경에서 사랑의 의미가 의곡되어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너무 일찌기 연애에 빠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누누히 보고 있다. 젊은이가 특별히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나 또는 (연구에 의하면 그들 중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이혼으로 파탄이 난 극도로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간에 그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내면이 갈급하는 가장 영원한 갈망인 궁극적인 인간 완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는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작은 소녀에게 그녀가 가진 때묻은 인형보다 미로의 비너스 동상*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어떤 건망증과 열병이 반드시 지나가면 성장이 따라 오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13세에서 30세를 지나는 동안 어느 때에) 연애는 결혼과 분리할 수 없으며, 행복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결혼에서 보는 최고의 신성한 사랑의 모습은 자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감정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예배를 점차로 가능하게 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성스러운 미소를 발견하게 하는 까닭은 그런 사랑은 그분의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젊은이가 타락의 풍조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팔리 피. 프렛은 그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같은 순결한 율법과 의식의 회복은 종족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읍니다. 선과 절제의 생활, 순수한 도덕과 예의, 신앙, 소망, 자비, 쾌활, 온화함, 고결, 지적 발전, 순수한 진리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이 종족을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며, 더욱 강건하게 해주고 보다 활기에 찬 체질을 갖게 하며, 보다 행복한 기질과 성품을 지니게 하고, 더욱 지적이 되며, 악한 것은 없게 해주며, 현세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보다 길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더욱 훌륭하게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신학의 열쇠, 데져렛 출판사, 1965년판 167—168페이지.) ○

*미로의 비너스, 희랍 동상, B.C. 110년~88년 사이에 제작



성장하는

● 오늘날의 젊은이는 지나간 세대의 젊은이보다 한층 더 위선을 피하려고 열망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사실을 말하는 교사나 지도자나 성인을 원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가장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토요일 밤에도 꼭같이 참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진실성에 대한 강조는 도시 생활을 잘 반영해 준다. 사람들이 작은 시골에서 살던 때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진실한 생활을 누렸다. 그때는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일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같이 애통하였고, 실망도 같이 했으며 다같이 한 발이나 자연과 싸웠으며, 서로 가까이 알고 지내며 생활했던 것이다. 이러므로 같은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속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도시가 부흥하게 되자 와드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 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저마다 저만 잘난체 하며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가려서 하게 되고, 일종의 "가식"을 가장하는 경향이 일어나는 것이다. 젊은이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참된 것에 대하여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는 자기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유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며 여러 가지 견해를 상호간에 기꺼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인이 그의 "일"을 하려는 권리에 대해서는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의 하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젊은이에게 시책과 결정 사항을 명령하는 권위와 엄한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나타내는 그들의 불만인 것 같다.

현대는 과거 어느 시대의 젊은이도 갖지 못하던 사회적 내지 범 세계적인 정의가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전쟁, 폭동, 재난에서 총탄을 맞았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절름발이가 된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과 더불어 고통을 나눈다. 이들은 또한 빈민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정력과 능력을 가지고 빈곤에 허덕이는 자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는 생의 모든 면을 소개하는 텔레비죤을 통해서 이전의 세대가 단지 상상만 했던, 세상에 일어나는 비참한 광경인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해오고 있다.

"이들 젊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세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감탄의 말을 자주 듣는다. 회복된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는 훌륭한 젊은이와 뛰어난 지도자는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시온에 대한 숙원을 오랫 동안 갖고 있다. 참으로 진실한 인간이 살며, 그들이 모두 일하는 이유를 알고있는 시온, 범 세계적인 정의와 평화와 조화가 넘친 시온,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의미와 달성과 기쁨이 가득찬 시온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허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세상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열망하는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세 대

케네드 더블유. 고드프리

에 스스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젊은이는 오늘날 그들의 숙원인 시온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인 문제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그들과 다른 젊은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또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참여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종교가 단순히 선행만 고집하는 복음이 되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과 참된 확신에 대한 요구를 깨닫고, 현실 문제의 참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의 뜻깊은 관계를 발전시킴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젊은이는 확신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봉사, 정직, 정의, 신앙, 회개의 원리는 그들의 생활에서 참다운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울러 다른 사람을 돕는데 복음을 활용할 기회를 바라는 것이다.

"젊은이는 처음에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성인을 의심한다. 감독의 면담과 같은 것을 분개하는 젊은이가 처음에는 상당한 수에 달한다. 그들이 내가 오래 참으며,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매우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리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감독은 피력했다.

한 훌륭한 지도자는 깊은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최소한 세 사람을 면담하는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발견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모른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 젊은이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와 유대를 맺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있다.

젊은이는 그들이 잘못할 때 지도자가 그들을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뒤에나,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는 지도자가 저들을 이해하며 염려하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난폭하든지 상관이없이 그들이 이해를 받기만 한다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인간들과 생활하셨을 때 그분은 어느 사람을 보고 도무지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한 분이었음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아마도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은 젊은이와 지도자가 다같이 지녀야할 성품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읍니다."

케네드 더블유. 고드프리, 아리조나주 템피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현재 아리조나주와 뉴 멕시코에 있는 종교쎄미나리 및 학원의 지역 분할책임자.

메리 조의 첫번 기도

마가렛 입손 키토

● 메리 조는 엄마 곁으로 바싹 다가 갔다. 이렇게 엄마 무릎에 앉는 것이 얼마나 기쁜일인가. 메리 조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이다. 메리 조가 엄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의 일분 일분을 그는 아꼈다.

하루 종일 메리 조는 바쁘게 해를 보낸다. 네살 짜리 애기 소녀가 할 일은 그렇게도 많다.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고, 세발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이웃집 늙은 개 새그를 데리고 씨름도 한다. 그러다가 정원에 물을 뿌리는 아버지 일을 돕기도 한다. 그와 씬디는 제일 친한 사이다. 둘이서는 모래로 집을 짓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진 일분동안이나 풀밭에 누어 풀잎이 간지르는 대로 발을 맡겨 두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분주한 하루가 지났고 메리 조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따듯한 목욕을 끝냈으며, 깨끗하고 파란 잠옷을 입은채 엄마의 무릎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즐기고 있다.

매일 저녁 메리 조와 엄마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 그들은 메리 조가 흥겨웠던 때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미소짓고는 한다. 엄마는 자주 메리 조에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고마우시지 !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메리 조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을 많이 보았다. 엄마가 그 모두를 보셨는지 ? 옆집의 새그와 놀 때 용감했던 모습을 보셨는지 ? 뒷뜰에 새로 싹이 튼 나무가 있는 걸 엄마가 아시는지 ? 메리 조는 아빠와 뒷뜰에 물을 주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래 성 ! 엄마는 그 예쁜 모래 성을 보셨는지 ? 엄마는 메리 조가 하루 동안에 보았던 것을 모두 보았다고 하셨고 딸만큼 즐거웠다고 하셨다.

"이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것에 대하여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자 !" 엄마는 다시 한번 메리 조에게 일러 주셨다.

그리고 나서 메리 조는 힘껏 엄마를 끌아 앉았다. 그것은 이야기 시간이 끝났다는 표시이며, 메리 조의 침대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는 표시이다. 엄마가 먼저 말을 하고 메리 조가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 밤은 메리 조가 무릎에서 뛰어 내리자 엄마가 그의 손을 꼭 움켜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메리 조 ! 그동안 엄마는 오랫동안 네 기도를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혼자서도 하나님께 기도 할 줄 알거라고 생각한다."

메리 조는 엄마를 쳐다 보았다.

"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지 ?" 엄마가 이렇게 묻자 메리 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해야 할 것을 서로 이야기 했거든,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축복을 너는 알지 ?"

메리 조는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를 끝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단다."

메리 조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쳐다 본 다음 눈을 감았다. 메리 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 제가 오늘 가졌던 모든 재미있는 일을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를……그리고 나를……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빛났다.

"엄마 !" 그는 크게 소리쳤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참 좋아 !"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목표

죤 에이치. 반덴버그

● 몇년 전 칠십인 장로 정원회 일원이며, 교회 청소년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오스카 에이. 커캄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길고 긴 사탕 무우 밭을 솎는 일을 보다 재미있고,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게 만들었나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말뚝을 세워둔 간단한 방법이었다. 일하는 젊은이가 이들 말뚝에 닿으면 레몬 쥬스나 과자를 먹으면서 잠간 동안 쉴 수도 있는 것이다. 굉장히 긴 밭이었지만 쉽게 눈에 뜨이는 목표, 즉 말뚝이 보였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달성하여야 할 목표가 필요하다. 훌륭한 직장을 얻기 위한 훈련을 쌓는다든가, 행복한 말일성도의 가정을 이룩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려야 한다. 목표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동시에 매일의 활동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활동력을 불러 일으킨다. 젊은이들이 생활하는 중에 필요로하는 동기는 곧 단기, 장기 목표를 적당히 갖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특별한 숙제를 성의껏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성격을 얻겠다는 관심과 결단이 형성된다. 반에서 잘하는 중에 졸업과 졸업 후에 가질 직업에 대비할 준비나, 기타 인생의 중요한 목표 설정에 관심을 갖게되는 법이다.

목표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은 자기가 따라야 할 계획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매일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이 세상을 끝마칠 때에나 달성할 목표로 시작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든지 인생의 도움이되는 목표는 결국 최종 또는 마지막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 단기 목표는 계획도 수월할 뿐더러 수행도 용이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있는 것이라면 인생의 전체 계획의 최종, 또는 마지막 결과에 도달케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상 생활은 영원에의 여행이다. 현재는 영원의 일부이다. 이 여정에 영원한 목적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기 계획에 먼저 착수하여야 한다. 영원을 어느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 그곳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과 사귀고 싶은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에서 가장 친절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와 더부러 살고 싶은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같이 즐겁고 영원한 상태로 인도하여 줄 매일, 매달, 매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육신의 관리, 재능의 개발, 세상의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있는 기술, 인생을 즐기는데 필요한 지식 등은 이런 목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젊은 남성이 자기는 신권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결정, 젊은 여성이 행복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준비하겠다는 결심 등은, 교회의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목표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들 목표는 인생의 가치있고 의로운 노력에 의미와 영원히 지속될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목표는 개인 스스로가 설정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는 남의 것에 따라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것에 따라서 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른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알맞는 목표를 세워야하는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데나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최대로 운용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공과 대학에 가야할 사람이 문과 대학을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에 적격인 사람이 교사를 원하는 때도 있다.

목표 설정에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점이 제기된다. 즉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전에 지적한 대로 영원한 목표를 우선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들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필요한 목표, 다시 말하면 학교를 마친다든가, 선교사 준비를 한다든가, 결혼 상대자를 구하여 신전 결혼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다든가 등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십대의 목표는 다시 직접적인 목표, 매년 달성해야할 목표 등, 앞으로 가장 중요할 십년 동안에 이룩하여야 할 것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교회의 젊은이는 교리와 성약, 특히 132편을 읽어야 한다. 이 편에는 우리가 목적 달성을 원한다면, 목표를 설정할 바탕이 무엇인가를 설명 해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주 목적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는 두 가지 약속을 받는다. 즉 어떤 사람과 현세와 영원을 남편과 아내로 보낸다. 영원한 가족의 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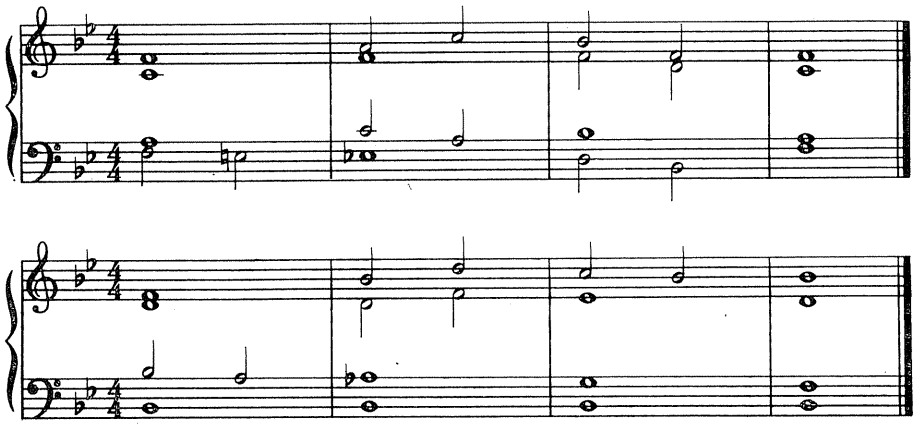
이 세상에 이같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니,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어졌음이라. 이 율법으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교성 132 : 31)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여 여하한 경우에서라도 이에서 이탈하지 않는 태도만이 영원한 아버지와 구세주의 면전에 돌아가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영생과 승영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

주일학교

8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DELMAR H. DICKSON



8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3장 5절

유년 주일학교

니파이일서 3장 7절

8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새찬송가 6장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 203장
"자장가"

8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요 한 반

교리와 성약 1장31, 32절

복음의 멧세지반

이사야서 55장 9절

예배를 좌우하는 원리

데이비드 로렌스 멕케이
(주일학교 총감독)

● 타는 관솔 가까이 간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명을 받았다. 아직도 성스러운 곳에 들어 가기 전에 신을 벗는 사람이 많다. 모자를 쓴 채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 놀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모자를 쓰므로써 경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느 사원에서는 아주 최근에까지 여자는 반드시 모자를 쓰고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것이 성스러운 곳에서 경건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외적 형태이다. 이러한 태도는 경건성을 느끼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만일에 참다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상태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사마리아인 처럼 산에서 보는 것이 좋으냐, 혹은 유대인처럼 성전에서 보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외적인 형태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흔히 형식에 대하여는 무관하셨고 이를 다음의 답변에서 본질에 관하여 명백히 밝혀주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 4 : 23)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예배는 영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세주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영으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판가름한다.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으려면 우선 마음 속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경한 행위 이전에는 반드시 불경한 생각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행위를 바꾸려면 첫째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불경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꾸짖는 대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찾겠다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 구세주를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서 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경건한 행동은 필연적인

것이다.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은 "이는 경건과 훌륭한 질서의 바닥에 깔려있는 자제력의 원리"라고 하신적이 있다. 대관장은 "경건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의 상태"라는 러스킨의 말을 인용하셨다. 그는 계속하여 "경건은 힘의 표시중의 하나이며, 불경은 약함의 가장 확실한 표시이다. 성스러운 것을 조롱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다. 인생의 고귀한 충성심은 존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곧 닥칠 시련의 날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셨다.

부활한 구세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시다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떠나셨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었나를 새삼 느끼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24 : 32)고 말하였다. 주일학교나 성찬식에서 예배를 볼 때에 역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배의 두번째 원리는 "성스러운 장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산이나 숲이 성전 보다 나으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위가 가볍고 세상적인 것, 소음과 번잡으로 휩싸였을 때에 비하여 경건에 이바지하는 분위기에서 경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사십일간의 금식 기도를 위하여 사막을 찾으셨고, 후에는 변형의 산으로 가셨던 사실을 주목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시간에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려 하였을 때에도 혼자 있기를 원하셨다. 엘리야는 번개, 불, 천둥 소리에 싸여 들리는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굴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숲을 찾았던 것이다.

예배당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건축하고 헌납한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배당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음을 제거하고 기도로의 기원을 드리는 성스러운 숲인 것이다. 전주 음악이 들리는 중에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를 그릇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배당 안에서는 이야기와 예배가 어울릴 수가 없다. 그들은 서로가 배타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헌츠빌의 예배당에 앉아 있던 어린 시절에 '이곳은 주님의 집'이라고 붙여놓은 글을 자주 쳐다보고는 했다. 이같은 표어를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곳은 주님의 집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은 곧 성스러운 숲이다. 대리석 성전이나 우아한 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예배당으로 충분하다. 장소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 건물은 예배를 목적으로 헌납되지만, 우리들은 예배할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헌납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시며, 적은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예배의 세번째 원리는 "예배중의 모든 행위는 경건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된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예배 순서의 절차는 오십년 이상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만일에 지도자 자신이 준비하고 참석하는 사람을 준비시킬 수만 있다면 경건성이 그대로 생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조심성 있는 반주자는 경건한 전주 음악을 연주하여 회중을 구세주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다. 참다운 예배의 개회 찬송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간구하는 순서이어야 한다. 감독이나 주일학교 회장은 사전에 준비하여 불필요한 광고는 빼야 한다. 야구, 파티, 만찬, 예배의 영과 일치하지 않는 행사 일체에 관하여는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지휘자는 위엄있게 찬송 연습을 인도하여 특히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여야 한다.

감독단에서는 2분반, 성찬 성문 봉독, 성찬 축복을 부탁 받은 사람과 미리 만나 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감독단의 관심과 배려를 기쁘게 생각하여 자기들이 맡은 순서를 잘하겠다는 의욕과, 그 순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좀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에 생각을 종이에 적었다가 지명할 때 함께 전하여 주는 방법도 좋다. 부름의 성스러움에 관하여 혼자서 읽고 생각해 보게 하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하게 한다. 순서 맡은 사람을 기도회에 청하여 세상의 관심을 떨어버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

주일학교 점검표를 사용하여 예배를 개선하도록 한다. 항목마다 관심을 쏟아 완전하게 만들도록 노력한다. 경건한 말과 세련된 품위를 보여 적어도 예배중에는 미숙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 주위의 영향과 행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초대한다는 한가지 목적에 일치되도록 한다.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억양은 멧세지의 전달에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

가정 생활이란 비단을

할레발루 마타호
(통가 여왕)

〔1968년 11월 27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통가 선교부의 골든 쥬발리의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상호부조회 가사품 전시회에서 할레발루 마타호 통가 여왕이 행한 연설을 번역한 것임.〕

●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고 싶읍니다. 아울러 영국 영사관 부인과 미국에서 오신태너 부대관장 부처와 그로버그 통가 선교부장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통가내의 각 교회의 여성 단체에서 참석하신 대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 부조회 회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훌륭한 일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표하는 모임에 참석하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 본인은 훌륭한 업적을 전시하여 뜻깊은 모임을 마련하여 주신 상호 부조회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통가의 세계 어느 곳에 있거나 간에 여성으로서 이러한 일은 조심스러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행하여, 참으로 우리가 사는 가정을 보다 즐거운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단어 두개를 바탕으로 전개할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가 husband(남편)이며 둘째가 wife(아내) 입니다. 남편(hus banq) 이란 말은 영어의 house(집) 와 band(띠) 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이 집둘레를 매어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호하며 부양한다는 뜻임을 알게될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보호하며 부양하는 사람은 남편이며, 가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남편이라면 가욱을 짓는 일등의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이 하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러한 책임은 남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것 즉 아내, 자녀, 그들의 사랑과 존경이 그에게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가족에게 가능하면 그것이 나라거나 교회거나 가족이거나 또는 어떤 단체이거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갖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마련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여성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이해와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남편은 저만큼 종교적인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원하는대로나, 영원한 진리에 좇아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짐이 된다."

만일에 이러한 것이 기독교 여성에게 특별한 부담이 된다거나 또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다면, 결혼 관계에 변화가 와야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에게 꼭 적용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힘과 위안의 근원이 되며, 위와같은 힘든 일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비이기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참다운 기독교적 사랑을 품고 있으며, 말과 행동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남편의 마음을 좋게 바꾸어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두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아내 (wif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결혼한 여성을 왜 wife(아내)라고 부릅니까? 이 말의 어원을 알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wife라는 단어는 원래 weave(짠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천을 가정에서 짜서 썼읍니다. 실까지도 각 가정에서 물레로 뽑아 짰읍니다. 실을 충분히 뽑은 다음 베틀에 넣고 천을 짰읍니다. wife란 말은 이 천을 짜거나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였읍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 읽어보면 :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잠언31 : 13, 19, 24)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구해다가 가정에다 연결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아내는 가정생활이란 천을 짤 책임과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행복을 가져다 주려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요소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저에 관한한 가정이란 천을 짜는 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참다운 기독교 여성, 특히 잠언에 묘사된 여성, 또는 남편과 자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짠 천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을 짜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시련과 유혹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짜야하기 때문에 피로한 시기도 오며, 도중에 뛰어든 문제와 고초로 얼룩진 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만 하면 전체적인 모양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이해가 충만하다면 초를 먹인실이 어느 것보다도 질기듯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용감히 임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천을 짜게 됩니다.

아내며 어머니인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과 사랑으로 아름답고 정연한 천을 짜고 있읍니까? 아니면 무질서한 천을 짜거나 가정에서의 특별한 소명을 제외하고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밖으로 도는 여성의 하나는 아닙니까? 오늘날 가정과 가족의 전통적인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이 많아졌읍니다. 이러한 부류의 여성은 회개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아름다운 가정에 필요한 천을 짜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의 하나는, 이곳에 모인 어머니 여러분은 자녀의 생의 천 즉, 개성은 주로 우리들이 천짜는 모습을 쓴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은 우리들로 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초년기에는 그들의 천을 실제로 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생의 형태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의 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육체, 정신, 영이 그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주며, 정신의 개발을 위하여 학문 탐구에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들 영혼에 양식을 주지 못한다면 가장 값진 부분이 영원한 영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어머니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의 영혼과 남편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은 이 불신의 세상의 어려움을 딛고 살고 있읍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분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영혼을 구하라

메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정원회

1969년 10월 2일 상호 부조회 연차 총회의 스테이크 임원회 대회에서 행한 신말씀

● 상호 부조회가 창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부인 상호 부조회"에(당시에는 이렇게 불렸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읍니다. 이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주님의 사업과 영광에 참여하라는 "부인"에게 내려진 책임이었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주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바입니다.

죤 휘트머와 피터 휘트머에게 각각 말씀하시기를 :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 : 6, 16 : 6)

또한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읍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 : 10, 15)

이러한 경전 구절은 영혼은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돌아가므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영혼이란 말은 "영과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성 88 : 15)

이곳에서 사용된 육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를 전하여 줍니다. 말일성도는 "영(체)"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영이란 말은 그리 잘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하겠읍니다.

예지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가르치시기를 !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교성 93 : 29)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

"…이는 내가 위로 하늘을 다스리며…태초부터 네 눈으로 본 모든 예지들을 다스림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서 계셨음이라."(아브라함 3 : 21—23)

영

경전을 보면 영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한 "예지 곧 진리의 빛"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들 영이 창조된 방편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읍니다. (교성 76 : 24) 이러한 영의 "아들 딸"과 "독생자"가 같다는 점에 관하여서 몰몬경 이더서를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약 2,200년전에 주님 자신이 야렛 형제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네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 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3 : 14—16)

우리들은 예언자를 통하여 생명체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읍니다.

"모든 영은 물질이니, 다만 극히 청결하고 순수하여 보다 청결한 눈으로써만 분별 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될 때에 영이 모두 물질임을 보게 되리라." (교성 131 : 7—8)

영의 탄생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니파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니삼 1 : 12—13)

약 2,200년 전에 야렛 형제에게 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따라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되었읍니다. 엘로힘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육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에게 생을 부여 할 때 물질로 된 하나님의 영의 자녀, 즉 인간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라는 시편 저자의 물음에 꼭 맞는 답변이라고 하겠읍니다. (시편 8 : 4)

세익스피어의 영감에 가득찬 시에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라고! 얼마나 고상한 이성을 갖고 있던가! 능력의 무한함이여, 형체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리요. 찬양하리요! 행동은 천사와 같은지고! 이해는 신과도 같으니!" (함렛 2막 2장)

영혼의 가치는 잠재력으로 평가됨

창조주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자손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며, 이들 자손은 완전히 성숙하였을 때 부모와 같이 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식물이나 동물, 인간의 자손에 있어서도 같읍니다. 그분의 영의 자녀이기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산 그대로 될 것을 인함이니." (요한 1서 3 : 2)

예수는 인간에게 이같이 높은 상태를 목표로 노력하라고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거니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니삼 12 : 48)

계획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므로써 영혼을 구하시겠다는 목적에의 달성을 위하여 태초로부터 노력하셨읍니다.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영으로 존재했던 천국 회의에서 발표되었읍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라함서 3 : 24—26)

우리가 현재 인간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첫째 지체를 잘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사불멸을 얻는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언자 요셉이 상호 부조회 여성에게 권고하는 말씀에서 나타난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확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두번째 지체를 온전히 지켜야한다는 크나큰 도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넘기만 하면 우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광이 더해질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와 같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 5 : 48) 이것이 구원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까지의 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과연 "영혼을 구하는 책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위의 말씀을 대답으로 드리겠읍니다.

저는 영혼이란 무엇인가—영혼이란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영혼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하는 노력에 실효를 거두려면 적어도 지식은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자는 원하는 목표물이 무엇인가에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 목적,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과 아울러 자신이 같은 길을 걷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를 동기와 지침으로 삼으려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시온을 얻는다는 희망과 기대는 의로운 사람에게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읍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은 1850년대 후반에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키셨읍니다.

"…내가 보았던 시현은 가축 틈에서 들판을 횡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 가축이 둘러싼 진흙밭도 아니었으며 사악한 성품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시온의 시현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고무되어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초를 이겨내며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주님의 영광을 계시된 대로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바울은 구세주가 친히 고난의 길을 감수한 사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읍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히브리 12 : 2)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올리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광의 보상을 가져오는 우리의 찬송가를 사랑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새찬송가 16장 "굳도다 그 기초")

또 다른 찬송가를 보면,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날이 오리니,
슬픈 일과 고난은 없으며
기쁘게 살리라.
(새찬송가 86장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영혼이란 무엇이며,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인류의 그치지 않는 바램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가슴 속에 깊히 간직하여 영원한 엄숙함이 마음 속에 머물러 있게"해야 겠읍니다. (교성 43 : 34 참조)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구원의 사업만을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원까지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구원의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주님께서 구원의 사업의 책임을 교회에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회에도 주셨음을 기억해야 겠읍니다. 주님은 상호 부조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의 노력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고 너희의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의 하는 일이 너희의 가까운 주변에 먼저 연결되게 하고 특히 상호 부조회 회원에게 연결되게 하라."(DHS 4권 607)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주변"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상호 부조회가 여성에게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대접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라. 남자가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근심으로 방황할 때, 불평이나 짜증대신 따뜻한 부인의 미소를 접하게 된다면 그의 격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요, 그의 영혼은 구제 되리라. 고난과 불안이 깃든 마음에 사랑과 친절이 필요한 것이라."(DHS 4권 606—7)

"너희의 주변"에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 가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일을 한다던가, 저녁에 가족과의 유대를 위해 갖는 등등의.

나는 최근 초등협회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다른 일로 집을 비우기 때문에 집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이해하고 또 자기들의 가정에서의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아는 상호 부조회의 회원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을 떠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숙녀의 상호 부조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교회의 다른 여성이 자녀들에게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과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성공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예하 각지부 주소 (1970년 7월 1일 현재)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7 ☎(73)3995

중앙 지방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 **녹번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61—56 ☎(38)4820
-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92)1005
-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 ☎(72)3596
-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1 ☎(73)1208
-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518—18 ☎(92)0744
- **수원지역**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94—3
- **신촌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10 ☎(32)4279
- **영등포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60 ☎(69)4663
- **인천지부** 경기도 인천시 우체국 사서함 52호 ☎(2)9852
-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73)3995
- **춘천지역** 강원도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9호 ☎3119

남부 지방부 부산시 우체국 사서함 292호
- **대구지부** 경북 대구시 삼덕동 2가 24 ☎(2)6659
-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10 ☎(4)9769
- **동래지부**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42—88 ☎(5)1180
- **마산지역** 경남 마산시 우체국 사서함 40호 ☎4961
-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 ☎(4)7071

호남 지방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 **광주지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2)2692
- **군산지역** 전북 군산시 우체국 사서함 40호 ☎1956
- **대전지부** 충남 대전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2)6273
- **목포지부** 전남 목포시 우체국 사서함 7호 ☎(2)2065
-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2819

■ 선교부장 멧세지 ■

기도－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선교부장 **서 현보**

●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5분 동안 시간의 여유가 있읍니다. 자, 이리로 들어 오시겠읍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특권을 허가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기꺼이 하시겠읍니까? 물론 이런 경험에 대한 느낌은 현재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연 다른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커다란 소망으로 온 마음은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뜻을 잘 깨달아 올바르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그분과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신비도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이 분명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분명히 이같이 말씀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너희가 신앙으로 꼭 받으리라고 믿으면서 무엇이라도 선한 것을 아버지께 간구할진대, 보라 너희가 구한 대로 너희에게 베풀어 지리로다." (모로나이서 7 : 26) 그는 또 우리가 간구할 때는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모로나이서 10 : 4)

진실한 기도란 단순히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주 기도를 드리지만 진실로 기도를 드립니까?

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말과 일치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며 그분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입술에는 임하실 수가 없읍니다.

이따금 선교사들이 구도자에게 기도하기를 청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 형식은 매우 단순하며 다음과 같이 네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인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시여"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말함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리는 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읍니다. 생명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실로 우리가 받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십시요.

세째는 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운 목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하십시요. 숲 속에 들어간 요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가 참된 것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요. 아마 이 점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십시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넷째는 끝맺음입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받드는 자에게 주님은 이르시기를 그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끝맺으십시요.

말일성도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가족 기도는 이렇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기도는 적어도 매일 아침과 밤 두 차례에 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은 음식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방법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실제로 보고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있읍니다. 이와는 달리 마음 속에 확신을 갖게 하는 느낌을 일으킴으로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읍니다. 기도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층 열중하게 함으로서 응답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읍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결과로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교통하는 방법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안내를 받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뜻을 가지고 다만 의로운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리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

■ 지방부장 멧세지 ■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중앙 지방부장 **차 종환**

● 과거가 불미스러웠고 불안했을 지라도 현재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며 아름답게 함은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인생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라고 본다.

지난날을 회상컨대 1957년 내가 침례를 받을 때는 나약한 신앙이 었고, 볼품없는 인생이었다. 신앙이 부족했기에 봉사나 나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집회의 중요성이나 경건성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가장 엄숙해야 할 성찬식에도 기분이 나면 참석하고, 싫으면 집회 도중에도 서슴치 않고 요란스럽게 나갔다. 어느날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선교사는 나에게 꾸중을 하였다. 그때 나의 감정은 대단히 좋지 않았으며, 한없이 그 선교사가 얄미웠다. 회상컨데 이젠 그런 과거의 행동과 신앙을 부끄러워 할줄 알고 회개할줄 아니 분명히 옛날 보다는 성숙했고 발전했나 보다. 소신권을 거쳐 대신권을 받았고, 상향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평의원, 한국 지방부장 등의 중책을 맡는 동안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이로 인해 무한한 축복을 받았다. 만일 내가 교회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선천적인 소질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지금은 술독에 빠져 두메산골 어느 곳에서 실의에 찬 생활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다. 교회를 알고 나서 학사, 석사, 박사가 되었으며 부인을 맞이했고, 일남 이녀를 얻었으며, 내가 원했던 대학의 연단에 서게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나의 생활에 가장 깊은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

교회도 많이 발전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 하리라 본다. 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고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 혹자는 이젠 볼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실망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있다. 큰 화분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 양분과 수분이 화분 밑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복숭아 나무로만 가도록 하기 위해 화분 밑에 큰 그릇을 받쳐 놓았다. 그러나 어떤 날 폭우가 쏟아져 화분 밑의 그릇에 물이 넘치고 말았다.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는 별 지장이 없이 잘 자랐다. 바라던 결실을 수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화분에서 물이 새듯 일부 회원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남아 있는 많은 성도는 복숭아 나무와 같이 여전히 성장하고 영생의 길, 완전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화분 밑의 그릇에 넘친 물이 나를 슬프게 만들듯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물이 샜다고 복숭아 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은 아니다. 몇사람이 하나님 집을 등지고 나갔다고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과 근심과 유혹으로 교회를 멀리 떠날때 육신은 그때부터 부패되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한국에 몰몬의 집회 장소는 한 곳에만 있었고, 1966년 지방부장의 부름에 응했을 때 전국에 지부가 6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지방부가 3개요, 지부와 지역이 21개가 넘는 것으로 볼 때 놀라운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 몰몬 개척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꾸준한 영적인 생활과 기도 생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회원은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요, 교회 발전과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본다. 이런 견지에서 회원은 물론이요, 크고 작은 일을 맡고 계시는 역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한한 축복이 그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고 거듭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신앙개조 13조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하셨고, "인내하여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 얼굴 보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교성 101 : 38) 하였다. 진실로 참음은 만복의 근원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명가운데 생활할 때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는다.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및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컨대 모든 것을 다 견디어 내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교성 127 : 4) 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떤 유혹이 닥치더라도 영생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주님의 크신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

성도의 벗
1970년 7월 1일 발행 (매월 1회 1일 발행)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1932
값 50원

우리가 악을 용납한다면

리차드 엘. 이반스

● 도덕의 표준이 날로 저하되고 예의가 문란한 오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저 뒷자리에 앉아 되어 가는 대로의 모양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추세를 변경시킬 만한 일이라도 있는지? 한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일은, 공사로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방종과 타락에 대하여 엄격한 방위선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눈에 뜨인다. 극히 간단한 일이라도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처럼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악이 가능한 것은, 악 그 자체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악을 규제하면서도 이를 용납하고 이를 좀더 이용하려 하므로써 악의 수명을 실제로 연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란한 상품의 거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간에게 해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일을 용납한다면 악의 번창을 병조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여하한 이유로 해서라도 만일 우리가 외설한 그림이나 도색 문학지를 구입한다면 결국 우리는 악의 사용자가 되고 만다. 우리가 여하한 행위의 부도적이고 문란한 행동을 용납한다거나, 더럽고 추한 것을 보려고 돈을 사용한다던가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못된 것을 사용하므로써 악을 장려하고 도웁는 일에 실제로 가담하는 것이다. 악은 욕심과 통한다: 돈을 벌겠다는 일에 악이 끼어든다. 인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악일수록 더욱 그 세력이 대단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다. 악은 우리가 용납하는 만큼 우리를 침입한다. 우리가 악을 받아 들이고 악을 권장하는 한 악의 세력은 무한대로 뻗어 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악을 견제하며, 도덕과 인간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여하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므로서 악을 막는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일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설득력이 있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